

## 예수,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 결에

### 빅 콜먼

#### 소개

크리스천의 삶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그분을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분이 개입하시는 것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최악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고 우리는 위기의 여파를 감당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는 어디에 계셨는가? 그분이 그곳에 계셨다면 저는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자매가 직면했던 질문들입니다. 이 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마련되었다.

#### 이 과에 사용된 성구

요한복음 11:1 – 45

야고보서 5:16

요한복음 3:16

베드로전서 5:6 – 7

이사야 55:8 – 11

#### 배경

예수는 예루살렘을 막 떠나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그분을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0:22-42). 그분은 침례 요한이 그의 추종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장소 근처의 한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친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머물고 계셨던 곳에서 하루 정도 걸리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 그가 뭐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11:1-3 을 읽어보세요. 이것은 연구에 대한 추가 배경을 제공합니다. 3 절에서 예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자로부터 "그가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받으신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어 "phileo"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나사로와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그들은 예수께 도움을 청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 장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분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일이 아니라면 가까운 두 번째 일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 그들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즉 오빠의 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 그들은 예수를 불렀습니다.

*당신과 예수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운가? 지난번에 위기가 닥쳤을 때, 너희가 주님을 찾는 데 얼마나 걸렸느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찾는 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무엇이 방해가 되었나요?*

*여러분이 "젊은 기독교인"이었을 때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여러분은 지금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4-6 절을 읽어 보십시오. 우선, 5 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오"인데,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본질적으로 희생적인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3 절에서 예수 형제에 대한 사랑을 "필레오", 즉 형제 사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5 절은 예수께서 나사로에 대한 사랑이 가장 높았다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3 장 16 절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아가페오"는 여전히 우리의 길을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가페오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하늘 아버지로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6 절은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바탕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즉시 우리를 도우러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의적으로 이틀을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은 5 절에서 예수가 "아가페오"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위해 아가베를 하신 것은 그분이 이틀을 더 기다리시고 죽게 허락하신 것과 관련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왜 기다리셨다고 생각하는가? 주님을 불렀을 때 그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즉 당신의 최악의 두려움이 일어난 것처럼 보인 적이 있습니까? 왜 예수가 여러분의 상황에서 기다렸다고 생각하는가?*

7-16 절을 읽어보세요. 7-10 절에 대한 주석이 쓰여졌는데, 이는 예수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로 가기로 결정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로부터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4 절에서 예수께서는 "이 병이 사망으로 끝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NIV)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친히 나사로가 죽었다고 알려주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최악의 상황, 즉 오빠의 죽음이 닥쳤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고 그분을 불렀을 때, 그분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가? 지금 그분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만약 당신이 그분께 돌아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5 절에 유의하십시오. 예수는 그가 "기뻐다"고 말합니다, 그는 제자들을 위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아가베오"로 사랑하셨지만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은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 기뻐하십시오?" 영적인 측면은 "주님, 저는 당신의 모든 길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시련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가 신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일 단계를 밟을 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고 그들의 믿음 안에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적절한 예로, 바로 그 후 얼마 안 있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되었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난 후, 사도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기독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사로와 함께 있었던 이 일은 사도들의 정신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그들이 더 효과적이고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 나머지 이야기

예수,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제 "나머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17-27 절은 예수와 마르다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가장 먼저 나아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우리가 내뱉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은 "예수,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입니다. 그러나 22 절은 희망을 가리킵니다.

21 절은 마르다의 인간적인 면(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여줍니다. 22 절은 영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 여전히 소망을 붙잡고 있는 면;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본성 안에서의 소망; 그분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지식입니다.

이 두 구절은 우리 안에서 매일 일어나는 싸움, 즉 육신은 성령을, 절망은 소망을, 두려움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신앙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 우리의 배경 -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와 타고난 성향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처리하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더 금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 우리의 기도 생활 - "기도"받는 것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 적극적이고 열렬한 기도 생활은 우리를 아버지께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야고보서 5:16 을 읽어 보세요. 이 구절의 후반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킹 제임스 성경」 (King James Version)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 의로운 사람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많은 유익을 준다.

이 구절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인"은 그리스어 "energeo"에서 유래했으며 "에너지"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Energeo"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1) 활동하고, 일하고, 힘을 내다린다
- 2) 하나를 위해 일하다, 하나를 돕다
- 3) 효과
- 4) 자신의 활동을 표시하기 위해, 자신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열렬한"은 그리스어 "ektenes"에서 유래한 것으로, 쉬지 않거나 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Availeth"는 그리스어 "ischou"에서 유래한 것으로, 강하다, 힘을 갖다, 비범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힘을 갖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이해는 이것입니다.

*"효과적이고, 강렬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쉬지 않는 기도는 비범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가? 그들은 어떤 조건에서 "열심"이 되는가?  
얼마나 자주 기도합니까? 방해받지 않거나 최소한의 방해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규칙적인 헌신 시간이 있습니까?*

열렬하고 효과적인 기도 생활은 우리가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가 – 만약 당신이 총알 없이 총과 전투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적과 오래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싸우려면 탄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무기입니다. 우리 안에 더 많은 것이 있을수록, 즉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과 성품을 더 잘 알수록, 우리는 위기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위기를 겪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육신으로 더 많이 반응했는가, 아니면 영으로 더 많이 반응했는가? 만약 당신이 육체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3 절에서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마르다는 유대인의 가르침에 따라 나사로가 부활 때에 다시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를 바로잡으시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생명의 절대적인 충만함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zoe"에서 유래 했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절대적 충만함"이십니다. 요한복음 3:16 을 읽어 보세요.

28-32 절을 읽어보세요. 32 절에서 마리아는 마르다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만, 마리아는 *22 절에서 그녀의 누이가 했던 것처럼*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소망의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반응합니다.

####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33-37 절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의 핵심 구절은 33 절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심령으로 탄식"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심령이 탄식하더라"는 단계는 그분의 감정이 진실하고 진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곤란하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tarasso"에서 유래했습니다.

- 불안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애통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마음의 평온을 제거"하였습니까? *그 대답은 우리가 느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감정 이입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경 쓰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근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35 절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분이 신경 쓰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울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6-7 을 읽어보세요.

**요점:** 예수는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니다.

*위기나 매우 슬픈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위기에 대처했을 때 심지어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방식으로, 즉 몇 년 전보다 더 큰 평안을 가지고 대응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37-45 절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구절은 39 절입니다. 나사로의 몸이 썩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그보다 더 "죽은" 존재가 될 수 없었다. 일부 유대인들은 영혼이 죽은 후 3 일 동안 시체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시체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흘 후, 시체는 "죽었다".

우리의 상황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가 부활 *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이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진정한" 희망이 없을 때,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강한 감정이나 욕망 때문에 "희망"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보다 우리의 감정에 더 많이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형제를 되찾고자 하는 감정적인 열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예수의 직접적인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확장된 희망"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 어리석음, 주제넘음 사이에 가느다란 선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듣는 열쇠는 그분과 현재적이고 친밀하며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43 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4 절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4 절에서 이 전체 구절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지체와 나사로의 죽음의 목적은 그분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병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결과는 45 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많은... 그분을 믿었다”고 말했다.

## 요약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을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의 몇 가지 측면을 보았습니다.

- 그분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 그분은 자신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것을 느끼십니다. 우리의 상처는 그분을 "괴롭힌다".
-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 그는 순간의 장면이 아닌 "큰 그림"을 보고 작업합니다.

이사야 55:8-11 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믿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방식대로 행하신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다른 사람들도 그를 믿는 것).

요한복음 11 장에 사용된 "믿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그 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다, "평온하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 모든 폭풍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